

# 하반기 양돈 경기 전망

김 성 호 대리  
(축협중앙회 조사부)

**요**즈음 일기는 엘리뇨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는가 하면 때아닌 폭우로 인해 지하철 침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피해 모두는 천재라고 볼 수는 없으며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던 인재이기도 하다. 이는 필시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국내 상황과도 흡사한 면이 있다. 즉 엘리뇨가 우리에게 IMF와 비교가 되는 것이다.

양돈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엿볼수가 있다. 연초 돈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이후 상승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역으로 돈가는 2~3월에는 강세를 보인 반면 4월 중순들어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5월 이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가축 통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향후 양돈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밝게 내다보는 기대섞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쪽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한치 앞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기초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고 더불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하반기 양돈 산업을 나름대로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 1. 사육 동향과 전망

올 3월 돼지 총마리수는 7,441천두로 1년 전보다 15.4%(993천두)가 증가하였으며, 3개월 전보다는 49%(345천두) 증가하였다. 과거에 3월 통계가 전반적으로 연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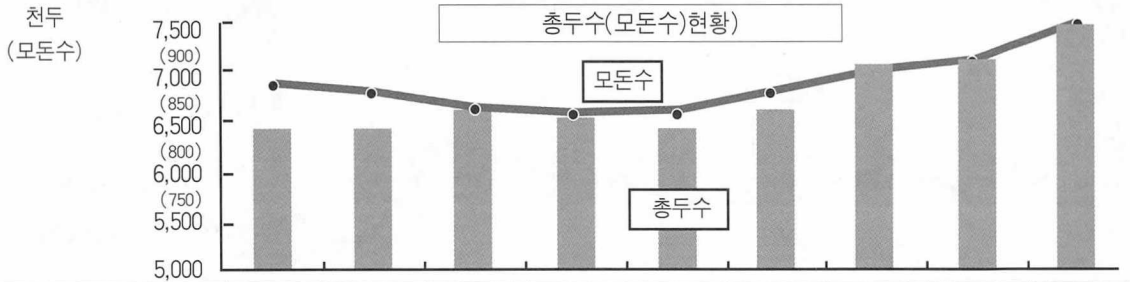
또한 향후 마리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마리수도 898천두로 1년 전보다 10.3%(84천두) 증가하였으며, 3개월 전보다는 38%(33천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육호수는 27,411호로 1년 전보다는 9.8%(2,966호) 감소하였으나 그 동안 농가가 꾸준히 감소를 보인 것과는 달리 3개월 전보다는 1.0%(280호)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양돈관계자의 상식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육 마리수를 전망하는데는 현재의 통계를 근거로 할 경우 사육 마리수가 갑자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IMF이후에 진행되어 온 일련의 상황과 연속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가축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이를 감안치 않은 상태에서 당초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큰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년과 같은 상황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올 6월에서 9월 사이에 출하가 가능한 물량을

〈표1〉 사육마리수 동향



구 분	96. 3	6	9	12	97.3	6	9	12	98.3
총 두 수	6,418	6,402	6,581	6,516	6,448	6,589	7,064	7,096	7,441
2개월미만	1,958	1,965	2,036	1,912	1,901	1,992	2,160	2,061	2,226
2~4개월령	2,135	2,147	2,211	2,223	2,139	2,195	2,351	2,386	2,437
4~6개월령	1,421	1,390	1,461	1,507	1,532	1,510	1,640	1,720	1,819
6~8개월령	78	72	72	78	79	77	80	83	82
8개월이상	826	828	801	796	797	797	834	846	877
모든수	839	834	809	810	814	829	851	865	898
사육호수(천호)	41	38	35	33	30	29	28	27	27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에 생산된 자돈으로 이 기간은 질병피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돈 폐사 두수가 많았으므로 출하할 수 있는 마리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돈 생산 마리수는 수태율이 비교적 좋은 시기라 할 수 있는 봄철 이후에 수태된 것으로 생산 마리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출하되는 물량은 비교적 질병피해가 적고 자돈 생산이 많은 봄철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출하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반면에 자돈 생산 마리수는 수태율이 연중 가장 낮은 시기라 할 수 있는 여름철에 수태된 것으로 생산 마리수는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수입자유화가 된 후 1년이 되거나 수입 돈육으로 인한 양돈 피해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규모화하는 농가는 꾸준히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 연말연초에 성적이 좋지 않은 모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도태가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모돈 생산성은 향상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육 마리수는 IMF한파 초기에 발생한 사료값 급등과 사료수급 불안으로부터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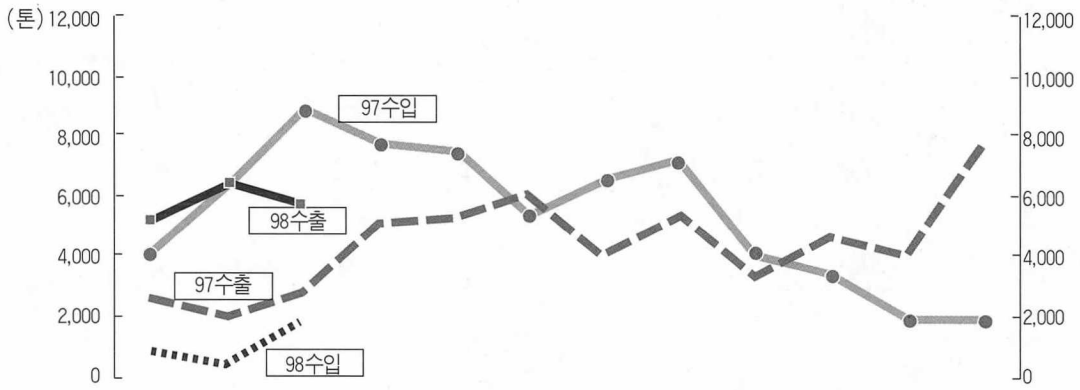
정도 벗어났고 봄철이후 사육여건이 좋아진데다 수출 증가의 지속적인 기대로 9월까지의 점차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 돈육 수출입 전망

올해 돈육수출 목표는 7만톤으로 계획하고 있다. 3월 현재까지 돈육 수출량은 16,60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24톤 보다 147% 증가하였으며, 이중 냉장육은 3,017톤이 수출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914톤 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목표량을 향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는 있다. 이는 국가경제가 외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력하나마 국가 경제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양돈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출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정책과 농가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 의지 등 돈육 수출 증대에 대한 공감대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축산물 종합처리장인

〈표2〉 수출입 동향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97(A)	2,306	1,804	2,553	4,964	5,129	5,887	3,976	5,100	3,496	4,474	4,035	7,900	51,624
'98(B)	4,868	6,220	5,515										16,603
냉장육	792	1,091	1,134										3,017
B/A, %	111.1	244.8	116.0	7,672	7,414	5,314	6,593	7,247	4,000	3,391	2,025	1,849	149.2
'97수입(A)	3,836	6,130	8,981										64,452
'98수입(B)	663	407	1,623										2,693
B/A, %	△82.7	△93.4	△81.9										△85.8

안성 축산의 개장은 현재 냉동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냉장육 위주의 전환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반면에 지난해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반사이익이 많이 완화되었고, 일본 경기침체로 일본도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입육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일본 바이어들의 국내 수출 돈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면서 냉장육 보다는 냉동육 수출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냉장육 위주의 규격돈 생산은 물론 위생적인 가공처리로 상품의 질과 포장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 수출만을 위한 저질육의 덤핑식 판매는 장기적인 수출시장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시장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현재의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한편 수입은 올 1/4분기에 2,693톤이 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947톤 보다 크게 줄어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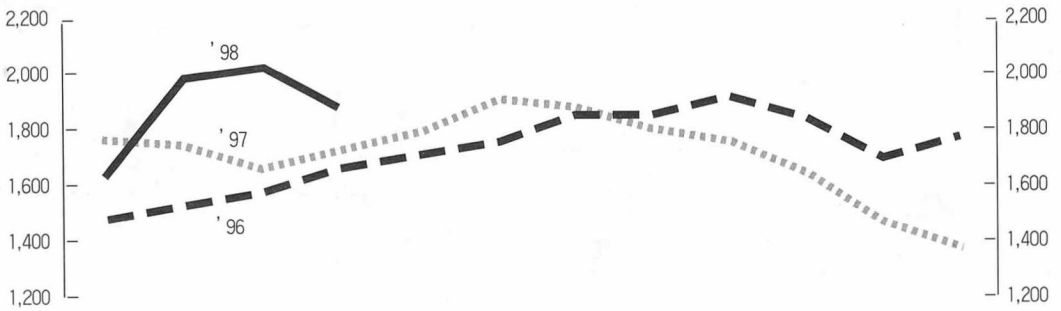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초 수입업체에서 5월 이후 돈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고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에서 국내 수입 구매단가를 지난해 보다 크게 낮추어 줌으로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수입은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되고 수입 구매단가가 지난해 평균 kg당 3.6\$보다 크게 낮은 kg당 3\$ 이하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국내산과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입육에 대한 소비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겠지만, 국내 돈가가 당초 상승할 것이라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현재의 낮은 가격수준이 이어지고 수입육 판매가 부진할 경우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 3. 하반기 돈가 전망

연초에 대부분의 양돈관계자들이 5월 이후 돈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IMF체제 이후 모돈을 포함한 도축 실적

〈표3〉 가격동향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96(A)	1,470	1,520	1,580	1,670	1,710	1,760	1,840	1,830	1,900	1,830	1,690	1,740	1,712
'97(B)	1,770	1,750	1,690	1,740	1,790	1,900	1,870	1,800	1,760	1,640	1,460	1,360	1,711
'98(C)	1,640	2,000	2,010	1,860									1,878
B/A, (%)	20.4	15.1	7.0	4.2	4.7	8.0	1.6	△1.6	△7.4	△10.4	△13.6	△21.8	△0.0
C/B, (%)	△7.3	14.3	18.9	6.9									8.1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료생산량이 1/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고, TGE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자돈 폐사 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출하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올해 들어 큰 증가를 보인 수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산지 돼지값이 5월 들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산지 돼지값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오른 수준에서 8~9월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출하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10월이후에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업의 연쇄도산과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주로 요식업체에서 많이 소비되는 돼지 갈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체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출하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입량이다.

최근에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각 육가공업체에서 5월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하여 연초에 비축하였던 재고의

방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은 비록 냉장육이 일본 유통업체의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해도 냉동육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은 냉장육 수출량이 국내 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비중 있는 물량이 못된다. 그러므로 일부 부위의 수출을 하고 남은 잔여육과 냉동육 수출 감소로 발생하는 물량을 내수로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내 경기는 수입육을 포함해서 이를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침체된 분위기의 늪을 빠져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끝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정한 프로그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으로 믿는다. 모든 국내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감히 장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프로 양돈인은 요즈음처럼 양돈산업이 불확실할 때는 항상 현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은 물론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본다.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은 정신적인 지주가 될 것이다. **養豚**